



김태경 | 감신대

## 1. 들어가는 말

건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 하나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서도 건강의 문제는 주목받는 주제가 되었다. 언론 매체가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제공해 주는 정보의 덕분으로, 건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의학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되었다. 현대의 건강 열풍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와 맞물려 상업적 관심과 상호 공존하며, 삶의 주요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 산업의 발달은 소비문화 내에서 몸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며, 사회 문화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어가고 있다.<sup>1)</sup> 이리

---

1) Mike Featherstone,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London: Sage, 1991), 14.

한 현상에 대해 사회 이론가 터너(Bryan S. Turner)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신체 지향의 사회’(somatoc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sup>2)</sup> 즉,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사회 발전보다는 인간 몸의 규제에 점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 개인이 자신의 몸을 중요시하는 현상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쏟는 포스트모던적인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집단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리 두드러진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사리 간과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예를 들어 신명기 신학자들은 비록 국가적이고 집단적인 문제를 그들의 주된 논의로 삼고는 있으나, 집단에 속한 각각의 개인과 가족이 누려야 하는 행복, 즉, 다산과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건강과 장수의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신 7:12-16). 다시 말해 구약성서에는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집단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못지않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일상의 행복의 문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건강과 장수의 문제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sup>3)</sup> 이는 바꿔 말하자면, 건강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 매우 큰 불행이며, 사람이 겪는 실존적 고통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적 건강의 문제가 말로 현대인 뿐 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Bryan S. Turner, *Regulating Bodies: Essays in Medical Sociology* (London: Routledge, 1992), 73.

3) 이스라엘 종교사의 주체를 국가와 개인으로 나누어 개인의 행복과 불행과 관련한 측면을 부각시킨 논문으로는 Rainer Albertz, *Persönliche Frömmigkeit und offizielle Religion*, CTMAG 9; Stuttgart, Calwer Verlag, 1978 참고. 그 후의 좀 더 광범위한 논의로는 알베르츠의 *Religionsgeschichte Israels im alttestamentlicher Zeit*, Bd. 1& 2, Göttingen: ATD Erg., 1992, 참고.

그런데 문제는 비록 인간이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며 장수하고자 하나, 동시에 이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질병’이 항상 공존한다는 점이다. 질병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이며, 삶이 건네준 성가신 것들 중의 하나이다.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괴로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 죽음을 위협받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아픈 사람으로 하여금 비단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할 뿐 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건강을 잃게 되었을 경우, 더욱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을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해야하고,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혹은 ‘연단’ 인지에 대해 기독교 공동체의 평가로 인해, 때로는 마음 놓고 앓을 수도 없음을 경험한다.<sup>4)</sup>

본 논문은 인간이 경험하는 실존적 행복 중의 하나인, 건강을 잃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신학적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 본문을 시편의 개인 탄원시를 통해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는 한 개인이 고난당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신앙의 특징이 드러나는지 말해주는 본문으로 개인 탄원시들이 있고, 그 중에는 ‘아픈 자’의 시 혹은 ‘병자’(病子) 또는 ‘질병’의 시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시편 연구는 궁켈(Hermann Gunkel)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편 주석가들이 인정하는 바, ‘아픈 자의 시’(psalm of sickness)가 존재함을 수용한다. 물론 여기서 ‘아픈 자의 시’란, 개별 시의 구조 분석을 통하여 얻은 독자적인 문학 양식이라기보다는, 본문의 내용, 즉,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질병’이라는 데서 규정된 것이다.<sup>5)</sup> 그런데 궁켈 이후로 지금까지 ‘아픈 자의 시’에 관한 연

4) 정정숙, “질병, 징계인가, 연단인가” 『월간목회』, 220호 (1994년 12월), 343.

5) 궁켈은 그의 시편 개론에서 ‘아픈 자의 시’를 시의 문학적 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탄원시의 삶의 정

구사를 살펴보면, 연구의 방향은 다만 개인 탄원시들 중에서 시인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몇몇 시들을 분류해내는 작업에 그치고만 있다. 즉, 시인의 고난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 경우, 이를 단지 아프다는 단 한 가지의 상황으로만 단순화시켜왔다. 그리고 이 경우 시인의 반응과 관련하여서도 역시 단순화하여 주로 두 가지 특징들이 언급되어져 왔다. 첫째 특징은 시인이 자신의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 특징은 질병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초래했다는 것이다.<sup>6)</sup> 어쨌든 지금까지의 아픈 자의 시에 관한 연구는 시편 자체 안에서만 연구되어져 왔고, 이스라엘 종교사적으로 개인의 신앙의 특징으로 취급되어 다루어지지 못하는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아픈 자의 시를 통해 어떻게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신앙과 경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시편연구가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아프다는 사실 하나로만 단순화 할 수는 없고, 병의 초기 단계부터 죽음을 경험할 정도의 극한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매우 유동적인 과정임을 인지하여, 아픈 자의 시들을 질병의 악화 정도에 따라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기와 후기 단계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건강의 악화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후 다루어질 본문 분석을 통해 나타나듯이 무엇보다도 시인 자신이 고백하는 자기 탄원 부분에 드러나 있는 병세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이를 통해 질병이 오래되고 깊어짐에 따라 시인의 신학적 입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관찰하되, 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 즉,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

황을 논할 때 언급한다(시편 6: 22; 38: 41; 5-11; 102). 궁켈은 병 치료를 간구하는 바벨론 종교에서 뿐 만 아니라, 음과 에레미야의 경우를 볼 때, 질병이아말로 탄원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Herman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182, 190.

6) 아래에서 논의되는 구체적 본문 분석과 각주들을 참고할 것.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를 주목한다. 이와 더불어 시인이 마침내 건강을 되찾고 난 후, 신학적 입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감사시를 통해 살펴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건강과 신앙의 상호 관련 문제는 결코 당시 이스라엘 개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과 경건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주된 요소임을 숙고하게 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과 범위

개인 탄원시들 중, 과연 어떤 시들이 ‘아픈 자의 시’에 해당하는지 구별해 내는 작업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가장 주된 이유는 몇몇 다른 유형의 시들, 예를 들어 ‘지혜시’, ‘순례시’, ‘야웨-왕 찬양시’, ‘제왕시’가 그러하듯이, ‘아픈 자의 시’ 또한 독특한 문학적 구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sup>7)</sup> 이 때문에 ‘아픈 자의 시’를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시인이 겪는 고난의 상황이 과연 육체적 질병인가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모호하다. 첫째, 시인이 스스로의 처지를 탄원하는 부분에서 질병과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할 때, 이러한 표현들이 진정한 육체적인 질병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sup>8)</sup> 이는 시인이 고백하는 질병의

7) 지혜시를 비롯해 언급되고 있는 시들은 시 본문의 구조가 아닌, 내용상 공통적인 주제로 구분한 것이기에, 이 시들은 양식적으로는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유형이거나, 혹은 이러한 양식들이 다소 변형되었거나, 혹은 몇몇 양식들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8) 예를 들어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문맥들에서도 죽음을 비롯하여 유사한 탄식의 언어가 발견된다(시 18:5-6; 28:1; 30:2-4; 40: 3; 42:8 등). 또한 시편 22편의 경우, 크레이기(Peter Craigie)는 ‘뼈가 어그러지고’(14절),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허가 입천장에 붙고’ ‘죽음의 진토에 두어졌고’(15절)라는 탄원을 통해, 시인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라고 판단하나(크레이기, 『시편 19』, (순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268, 원제는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19; Texas: Word books Pub., 1987)), 쟁어(Erich Zenger)는 시인이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공포를 혼동하고 있다고 보며, 시인의 탄원들이 반드시 질병 자체라기보다, 대적자들에 의해 야기된 공포 혹은 마음의 번뇌라고 본다(Frank L. Hossfeld/Erich Zenger, *Psalmen 1-50* (NEB 29; Freiburg: Herder, 1993), 269). 시편 102편의 경우도 바이저(Artur Weiser)는 중년에 데러가지 말아달라는 간구(23-24절),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는 것(3절), 뼈가 숲같이 뒳다는 것(3절), 음식

징후들이 때로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으로 인해, 육체적 질병이 사실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기인함을 전적으로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픈 자는 자신의 병을 생물학적 기능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신학적이며 사회-심리학적 경험에 의해 인식하기 때문에, 시인이 표현하는 질병과 관련된 육체적 징후들은, 사실상 심리학적인 고통 및 신학적인 성찰과 맞물려 있기에 분간하기가 모호하다.<sup>9)</sup> 이와 더불어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고난의 표현 방식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고 유사하며 유동적인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sup>10)</sup>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아픈 자의 시’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일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궁켈(H. Gunkel)과 모빙켈(Sigmund Mowinckel)은 인간의 ‘질병’ 이야 말로 야웨를 향한 탄원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탄원시들을 ‘아픈 자의 시’로 규정하는데 반해,<sup>11)</sup> 다른 주석자들의 경우는 적게는 세 편 가

---

먹기도 있었다는 것(4절), 살이 뼈에 붙었다는(5절) 언급을 아픈 증세라고 판단하나(아터 바이저, 「시편 1」(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04. 원제는 Artur Weiser, *(The) Psalmen*, (Göttingen: Vanderhoeck & Ruprecht, 1979)), 게르스텐베르거(Erhard S. Gerstenberger)는 시인의 이러한 자기 탄원의 결정적인 원인을 극심한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의 표현이라고 본다(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I: with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211). 나아가 시편 39편의 ‘내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으니라’(3절)는 탄원의 경우 정어는 심장과 관련된 병의 일함으로 보나(Frank L. Hossfeld/Erhard Zenger, *룻글*, 247), 속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반응 중, 하나이기도 하다(신 19:6). 궁켈이 지적한 대로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질병은 부수적인 것이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생활의 경험일 수 있다(크레이기, *룻글*, 415).

- 9)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13권 1호 (2006, 4월), 144.
- 10) 크라우스(Hans J. Kraus)는 ‘아픈 자의 시를 언급함에 있어서, 아픈 자는 결국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병, 죄, 고소라는 세 가지 개념은 상호 유동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Hans J. Kraus, *Psalmen 1: Psalmen 1-59* (BKAT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XLIX.
- 11) Hermann Gunkel, *룻글*, 189; Sigmund Mowinckel, *Psalmen Studien I* (Amsterdam: P. Schippers, 1966), 17. 그러나 모빙켈은 이 후 자신의 주장이 너무 과장됨을 인식하고 수정하는데, 적어도 시편 6; 38; 39편이 ‘병자

량에 지나지 않는다.<sup>12)</sup>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시편 연구자들 대부분이 ‘아픈 자의 시’라고 자주 언급하는 시들에 국한한다. 우선 시편 6편과 38편 및 88편을 살펴보면, 건강의 악화와 회복에 따라 이 시들을 질병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구분한다. 이 때 무엇보다도 시인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신의 질병 상태에 관한 탄원의 내용을 검토해봄으로서 건강의 심각 정도를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감사시에 해당하는 시편 41편을 살펴봄으로써, 건강을 회복한 후 시인이 획득한 신학적 입장의 특징을 파악한다.

### 3. 건강의 악화에 따른 탄원의 변화 현상

#### 1)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의 탄원의 특징(시 6편)

궁켈과 모빙켈, 그리고 게르스텐베르거(Erhard S. Gersenberg)는 시편 6편을 대표적인 ‘아픈 자의 시’로 분류한다.<sup>13)</sup> 시인이 겪는 질병의 증후는 2절에서 두 번의 간구 이후에 이어지는 간구하는 이유(כִּי) 속에 나타나 있다. 시인은 아뢰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יְהִי חַסְדְּךָ)와 ‘고쳐 달라’(תְּקַח)라파, 시 30:2; 41:4; 103:3; 호 6:1 민 12:13)고 간구하며 그 이유는 ‘수척하다’(אֲנִי כַּחַמְדָּה)와 ‘뼈가 떨린다’(תִּרְדָּתִי) 바할 예츨, 시 31:10)라고 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한 시인의 육체적 고통을 드러낸다. 크레이기는 5절에 ‘사망’(מָוֶת)과 ‘스올’(שׂוֹל)에 대한 언급, 6절에 ‘밤마다 울며’, 7절에 그로 인해 ‘눈이 쇠하다’는 고백에 근거하여,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시인에게 질병으로 인한 심한 피로

---

의 시’인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Sigmund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1992), 16.

12) 세이볼드(Klaus Seybold)의 경우는 시편 38; 41; 88편이고(Klaus Seybold, *윗글*, 113-117), 크라우스의 경우는 시편 6; 38; 39편 등이다.

13) Hermann Gunkel, *윗글* (1975), 182; Sigmund Mowinckel, *윗글* (1992), 105; Erhard S. Gerstenberger, *윗글*, 62.

와 불면증이 유발되었다고 본다.<sup>14)</sup> 그러나 시인이 이렇듯 탄원하는 병세의 징후는, 이후 살펴보게 될 시편 38편 및 88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질병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시의 구조 분석을 통해 볼 때, 시인이 보여주는 신화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픈 시인은 야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야웨에 대한 원망을 보여준다. 즉, 3절 후반부에는 직접적인 탄원 “어느 때 까지니이까?”(עַד-מַתַּי אֵד) 아드 마타이 시 74:10; 80:5 등)가 나타나고, 동시에 4절에는 간접적인 원망에 해당하는 ‘돌아와 달라’(שׁוּב) 슈브)라는 간구, 즉, 야웨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간접적인 탄원이 등장한다. 주목할 점은 1절을 볼 때, 시인은 현재 자신이 심하게 고통 받는 질병의 원인을 야웨의 ‘분노’(אֵף 아프)와 ‘진노’(חַמָּה 헤마)로서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진노를 야웨의 ‘책망’(יָכַח 야카흐) 및 ‘징계’(יָסַר 야싸르)와 동일시하고 있다. 즉, 육체적 병의 고통을 야웨께서 시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교육시키시는 도구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는 첫째,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우, 둘째,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경우, 셋째, 심리적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에 덧붙여 질병을 야웨의 특별한 뜻으로 본다.<sup>15)</sup> 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당시 의학적 지식이 없던 근동의 세계에 있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질병과의 핵심은 야웨와의 일그러진 관계였고, 치료의 관건 역시 야웨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나 영향력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었다.<sup>16)</sup> 이는 마치 무죄한 자가 고난 받는 경우, 즉, 옴의 육체적 질병(옴 1:9; 5:17-18)과 고난 받는 중(사 52-53)의 경

14) 불면증은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고요와 외로움이 깊어지며, 고통과 슬픔이 극에 달하는 기나긴 잠 못 이루는 밤인데, 크레이기는 이 시의 배경이 아침 기도 시간이었다고 추정한다, 크레이기, 윗글, 117.

15) 정정숙, 윗글 343. 야웨가 삶과 죽음, 질병과 건강을 좌우하고 있음은 신명기신학자들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신 32:39).

16) 홍성혁, 윗글, 144.

우가 그러하다. 이렇듯 시인은 질병의 원인을 자신을 향한 아웨의 교육적인 진노하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이기(P. Craigie)의 주장대로 아직까지는 질병의 원인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거나, 죄를 회개 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있지는 않다.<sup>17)</sup> 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 까지니이까?”(시 74:10; 79:5; 80:4; 90:13; 94:3)에서 시작하여, 6절 “간구를 들으셨도다”라는 확신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시인은 아웨와의 관계에 있어, 건강 회복과 관련하여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시인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건강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적’을 향해 매우 당당하다. 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8-10절은 1-7절까지와는 달리, 구원에 대한 확신의 어조로 전환되어 있다. 8절에서 시인은 적을 향해 강하게 선포한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מִמֶּנִּי כָל-פְּעֻלֵי אֹיֵב) (시 4:2-3; 52:1f.; 58:1f.; 62:3; 119:115 참고).<sup>18)</sup> 이 선언의 기반은 9-10절에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아웨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응답에서 기인한다. 모빙켈에 이어 게르스텐베르거도 시인이 받은 응답의 확신은 병자와 가족 등이 주술사를 불러, 제의식으로 환자를 고치려는 기도로 본다(왕상 14:1-3; 왕하 4:18-36;

17) 크레이기는 이 점이 시편 38편과의 차이점이라고 인지한다. 크레이기, *윌글*, 115. 이 때문에 비록 고대 교회가 이 시를 ‘참회시’(penitential psalms, 시 6: 32; 38; 51; 102; 130; 143)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시에는 시인의 명백한 죄의 고백 및 회개가 없다. 이점이 이 시가 다음 단락에서 살펴보게 될, 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드리는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편 38편 및 88편과 다른 점이다. 특히 시편 38편의 경우 질병과 죄의 인과 관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18) 게르스텐베르거는 이 외침을 ‘귀신을 쫓는 제의’(Rituals of exorcism)에서 유래했다고 본다(렘 4:15; 욥 21:14; 시 139:19; 마 16:23); Erhard S. Gerstenberger, *윌글*, 62. 가족과 함께 모든 치료 행위가 수모로 돌아가고 난 후, 제의 전문가를 찾아 치료 제의식을 행하는 것으로서(왕상 14:1-3; 왕하 4:18-36; 5:11 등), 메소포타미아 비문에서 보듯이, 제사장으로부터 신탁과 확신의 말을 들은 탄원자는 믿음과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 크레이기, *윌글*, 114. 김이곤은 아웨께서 불쌍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모티브로서, 거룩한 전쟁 제의에서 사용되는 제의 언어, 즉, 전쟁 함성이라고 본다. 개인 탄원시의 분위기의 급전은 바로 이러한 전쟁 용사로서의 아웨가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승리의 보장 선언 후, 승리가 확정되고 원수들이 황급히 물러서는 상황을 보여준다. 김이곤, 『시편 시문학의 신학』(서울: 한울출판사, 2006), 109-200.

5:11). 그러나 세이볼드(Klaus Seybold)가 주장하듯이, 오히려 여기서의 삶의 자리는 시인의 참회 의식으로 보여 진다. 여기서 적이란 7절에 “내 모든 대적”(כָּל-צוּרָתִי) 콜 초레라이), 8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כָּל-אֵיבֵי אֱוִן) 포알레 아웬), 10절의 “내 모든 원수들”(כָּל-אֵיבֵי) 콜 오예바이)로서, 아픈 시인을 아웨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이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인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아웨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질병을 아웨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비난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웨께서 주는 건강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표현한다(8b-9절). 이로서 알 수 있는 바,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육체적 고통과 이로 인한 신앙적 좌절은 시인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능가하고 있지는 못하며, 주변 인간관계에 고립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병을 아웨의 교육적 조처라고 판단하며 자신의 병을 비웃는 적들에게 건강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다.

## 2) 질병의 중기 단계에서의 탄원의 특징(시 38편)

시편 38편은 시편 6편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아픈 자의 시’로 간주되는데, 모빙켈과 쟁어(Erich Zenger) 등, 시편 연구가들은 시편 6편과 38편의 시인 모두 치료받기 힘든 심한 질병에 걸린 자라고만 다루고 있다.<sup>20)</sup> 그러나 각각의 시인이 스스로의 처지를 탄원하는 단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질병에 대한 고통의 정도에 있어서 시편 38편은 시편 6편에 비하여 스스로의 육체적 고통을 탄원하는 부분이 매우 길게 확장되어 있기에(2-10절), 좀 더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보여 준다. 즉, 시편 6편보다 시편 38편은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 1-10절 까지 시인의 자기 탄원이

19) Hans J. Kraus, *윳글* (1978, 7), 51.

20) Sigmund Mowinkel, *윳글* (1992), 67; Fridrich L. Hosfeld/Erich Zenger, *윳글*, 198.

길게 확장되어 있다. 3절에 부정 불변사인 ‘**אין**’ (아인/...이 없다)을 사용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탄식하며,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고 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이는 바이저(Autor Weiser)와 크레이기(P. Craigie)에 의하면 일종의 피부병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둥병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게 한다.<sup>21)</sup> 그 밖에도 6절에 ‘심히 구부러졌다’, 7절에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8절에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다’, 또한 10절에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눈의 빛도 떠났다’는 탄원은 몸의 전반, 즉, 피부, 뼈, 머리, 심장, 눈 등에 걸쳐 아픈 징후를 호소하기에, 한 가지 질병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듯 시편 6편 보다 좀 더 악화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편 38편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인과 야웨의 관계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시인은 시편 6편보다 더 강하게 도입 부분에서부터 자신의 병을 야웨의 징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며, 좀 더 길게 확장하여 고백하고 있다(1-2절). 즉, 1절에는 자신의 질병을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의 결과로 인식하면서, 2절에서는 이러한 분노를 주의 심판의 도구로서 ‘주의 화살’(시 7:14; 11:2; 욥 6:4; 신 32:33 등)과 ‘주의 손’(삼상 6:3,5; 욥 19:21; 시 32:4; 39:10)이라고 명백하게 인지한다.<sup>22)</sup> 그러나 시인은 시편 6편과는

21) 아터 바이저, *유클*, 236; 크레이기, *유클*, 408. 머리와 목의 ‘**אין**’(레 13:30)은 백선의 일종이었으며, 반면 레위기 13장 39절의 피부의 색점은 아마 백반(白斑)이었던 것 같다. 레위기 21장 20절의 버짐은 백선처럼 가려움증이 나는 병의 증세를 보였으며, 반면 고향병(레 21:20; 신 28:27)은 아마도 백선의 변형된 형태 또는 어떤 다른 균에 의한 병이었던 것 같다. 김홍관, 「성서(聖書)에 나타난 疾病과 治療」(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1999), 26. 전염병이 역사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한 사회, 한 국가, 한 인종집단 전체에 포괄적으로 그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 한 예로서 출애굽기 12장 29-34절에 이집트를 강타한 역병을 통한 히브리 민족국가 형성, 사무엘상 5장 1절-7장 2절에 나타나는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에게 미친 역병으로 인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다. 이로 인해 다윗왕조는 예루살렘 성전 신학 중심의 중앙 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22) 고대로부터 피부병은 신이나 악마의 화살로 여겨졌는데, 예를 들어 가나안의 재앙의 신은 ‘활 쓰는 자 레셉(Resep)’으로서, 우기릿에서 레셉(Resep)은 재앙의 신으로서, 활촉에는 독이 있기에 그 화살을 맞은 자는 병들어 죽는다. 김정우, 『시편 Ⅱ』(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822 참고. 또한 바벨론에서 발견된 의학 관

달리 병의 원인을 자신을 향한 야웨의 교육적인 도구라고만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18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한다(“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즉, 3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또한 4절에서는 “죄악이 머리에 넘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탄원하면서, 질병의 초기 단계인 시편 6편과는 달리 병의 원인을 명백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sup>23)</sup>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스스로의 죄의식, 즉, 책임 의식 또한 더욱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질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 즉, 병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야웨의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구약성서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개인적인 차원의 경우(민 12: 10-15; 신 24:8-9)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경우, 율법에 대한 분순종의 결과로서 질병 심판이 동반된다(신 28; 민 25:1-9; 삼하 24:15; 출 15:26 신 7:12-15). 회개는 국가적인 경우든, 개인적인 경우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대하 32:24-26; 욥 2:7-13).

야웨와의 관계에 있어 두 번째 특징은 시의 후반부인 21-22절에 보면, 시인은 비록 시편 6편과 마찬가지로 야웨께서 자신을 ‘버리고, 멀리하셨다’고 인지하고는 있으나(19절), 이에 상응하여 깊어진 원망만큼이나, 다

---

게 서판주에는 특정한 병들의 발생을 ‘이슈타르의 손’, 혹은 바벨론 판테온의 어떤 다른 신의 탓으로 돌린다. 지누르시는 하나님의 손은 적대적인 심판의 매개체로서 야웨의 심판을 강조한다. 김홍관, *율골*, 12.

23) Erhars S. Gerstnberger, *율골* (1988), 161. 크레이기의 경우, 시인이 물로 에워싸여 있다는 모티브는 물로 행하는 판결에 대한 고대의 관습을 반영하는데, 물로 행하는 판결은 고발된 자를 강에 빠뜨려서 죄나 무죄를 결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생존은 무죄를 의미하고, 익사는 죄의 증거였다. 그리고 생존 혹은 죽음은 신들의 행동으로 여겨졌다(크레이기, *율골*, 176.) 크라우스는 종교적 제도로서 병자의 정화 의식(Krankenreinigung)을 인정하며, 시의 배경에는 죄 고백과 결부된 치료 의식을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신운수 옮김), (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2004), 204. 원제는 Kraus, Hans J., *Theologie der Psalmen* (Berlin: Neukirchen Verlag, 1989). 게르스텐베르거는 통회, 정화, 제물, 유죄 확정과 죄 씻음을 동반한 적절한 진단을 덧붙인다. 또한 이러한 의식은 토속 전문가의 지도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본다. 환자와 가족은 모든 치료를 한 후, 역부족을 깨닫고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기도와 의식에 익숙한 전문가를 찾는다(왕상 14:1-3; 왕하 4:18-36; 5:11 등). 전문가는 준비하고 수행하며 환자의 가족과 친척과 마을 공동체가 이에 참여하는데, 집이나 환자의 침상에서 행해진다. Erhard S. Gerstnberger, *율골*, 164.

시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물론 크레이기의 주장대로 시편 6편에 비하여 비록 치유를 확신하고 있는 어조의 변화나 신뢰에 찬 믿음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웨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18절), 자신을 버리지 말고(21절), 멀리하지 말아 달라(21절)고 간구하며, 속히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20, 22절).<sup>24)</sup>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질병의 원인을 자신의 죄라고 받아들인 만큼에 비례하여, 건강 회복에 대한 아웨를 향한 신뢰와 실존적인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편 6편과는 달리 ‘적에 관한 탄원’ 부분(11-20절)에서, 질병이 오랜 기간 악화됨에 따른 시인의 사회적 고립이 나타나 있다. 시인의 적들은 다름 아닌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로써, 11절에 보면 오랜 질병은 시인으로부터 ‘사랑하는 자’ (אֶהְבֵּב, 아헤브), ‘친구’ (רֵעַ, 레아), ‘친척들’ (בֵּרֵךְ, 카로브)이 떠나가게 한다. 크레이기의 주장대로 시인은 실제적으로 든 혹은 스스로의 자격지심 때문이든 간에, 질병으로 인해 철저히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5)</sup> 사실상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질병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웨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척도였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마을 공동체의 태도는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마을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켰고, 친구뿐 만 아니라 가족과 종들에게까지

24) 크레이기는 21-22절의 세 가지의 간구인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리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를 시편 22편 2, 12, 20절과 비교하면서, 개인이 치유에 대한 소원을 제의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본다. 크레이기, *율글*, 409.

25) 시인이 느끼는 소외감은 시인의 부분적인 편집증 때문일 수도 있음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율글, 410. 오랜 질병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영적인 고통까지 수반하고 있으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에 변화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인한 결과는 대적들은 상황분석, 고소, 비방 등 다양한 수단을 써서, 죄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병든 자를 불의한 자로 몰아서 그의 병이 합당한 질병임을 보이려한다. 그의 병은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증거임을 보여주려고 작정한 자들이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소망이 없는 자, 버려진 자라는 낙인이 찍혀져야했다. Klaus Seybold, *Das Gebet des Kranken im Alten Testament, Untersuchungen zur Bestimmung und Zuordnung der Krankheits-Bund Heilungspsalmen* (BWANT 99; Stuttgart: Kohlhammer, 1973), 203.

도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욥 19: 13-19).<sup>26)</sup> 다시 말해 질병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며,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게 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병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하기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제의에서 배제된다. 특히 악성 피부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는데,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 14절에 나타난 미리암의 경우, 마치 친아버지로부터 그 얼굴에 경멸의 표시인 침을 뱉음을 당하는 딸에 비유됨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부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역대하 26장 16-21절의 경우, 웃시아 왕 또한 문둥병으로 인해 격리된 별궁에 거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성전 출입과 예배 행위가 금지되었다(레 12: 4; 13:45-46; 15:31; 참고 대하 26:21).<sup>27)</sup>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병이 깊어지면서 시인이 가지는 아웨와의 관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다른 대조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즉, 질병은 시인과 아웨와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원망의 관계에 깊게 돌입하게도 하나, 시인이 병의 궁극적인 원인을 자신의 죄로 판단하여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할 때, 아웨와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되며, 결국 건강에 대한 회복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아웨와의 관계는 회복되지만, 시인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 관계적인 양상은 더욱 더 고립되는 측면으로 나아간다.<sup>28)</sup>

26) 환자는 또한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했다(레 12:4; 13:45-46; 15:31; 참고 대하 26:21). 성전에 대한 접근 정도의 차이는 정결 정도의 차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제사장 그룹은 정결의 정도를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와 생산성으로 평가했다. 환자는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부정하고 보호와 치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격리의 대상이었다. 홍성혁, *유태*, 142-143.

27) 병자들의 성전 출입 격리에는 사회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의도가 있다. Hector Avalos, *Illness and Health Care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Role of the Temple in Greece, Mesopotamia, and Israel*, (Atlanta: Scholars Press, 1995), 377-391. 이에 대해서는 홍성혁, *유태*, 142-143 참고.

28) 의학 사회학적으로 볼 때, 장기적인 질환은 반드시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신학과 심리학과 사회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하다고 보며, 인간이 통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신학, 혹은 오직 철학과 심리학, 혹은 오직 사회정치학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속해 있음을 주장한다. Claus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Ga.: J. Knox Press, 1981), 257-258.

### 3) 질병의 후기 단계에서의 탄원의 특징(시 88편)

시편 88편은 모빙켈과 세이볼드 등, 대부분의 주석자들에 의해 ‘아픈 자의 시’로 구분되고 있다.<sup>29)</sup> 주목할 점은 이 시는 일반적인 개인 탄원시의 종결부에 나타나는 찬양 서원이나 확신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에, ‘가장 슬픈 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 ‘가장 어두침침한 시’라고 분류된다.<sup>30)</sup> 특히 앞에서 살펴본 시편 38편에 비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시인의 두려움이 매우 자주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인의 건강 상태는 추측하건데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3절에 생명이 음부에 가까웠다는 것(욥 33:22 잠 2:18 등), 4절에 무덤에 내려가는 자로 인정되었다는 언급, 또한 5절에 사망자 중에 던져졌다는 것, 무덤에 누운 자 같다는 시인의 고백은 온통 죽음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에 쌓여 있고, 병세 자체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오래되고 매우 악화되었음을 암시한다. 질병의 상태가 크라우스가 주장하듯 어릴 때부터 중병에 걸려 평생 동안 고통 받으며, 거의 죽게 된 만성적인 환자로 보인다.<sup>31)</sup> 더 나아가 시인은 아마도 성문 밖에 버려져 사는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 시에는 강한 고독과 외로움이 묻어나기에 다후드(Mitchell Dahood)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처량한 인간의 탄식이라고 본다.<sup>32)</sup> 질병이 악화된 후기 단계로서 시가 보여주는 신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인은 시편 6편 및 38편과 마찬가지로 7-17절에는 자신의 병의 원인을 주의 분노와 연결시키고 있다. 14절에 직접적이고 전형적인 불평 모티브인 ‘어찌하여’(לָמָּה לָּמָּה 라마), ‘버리다’(נָּטַּח 자나흐), ‘얼굴을 숨기다’(סָּתַּר פָּנָּי) 싸타르 파님)가 나타난다. 그러나 시인은 병의 원인을 자신

29) Sigmund Mowinckel, *윗글* (2004), 134; Klaus Seybold, *윗글*, 117.

30) 김정우, 「시편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726 참조.

31) Hans J. Kraus, *Psalmen 2: Psalmen 60-150*, (BKAT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773.

32) Mitchell Dahood, *Psalms (51-100):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note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3), 167.

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야웨와 논쟁하며 건강을 요청한다(1, 2, 9절). 10-12절 까지 의문사  $\eta$ (하)로 시작되는 시인의 논쟁은, 10절에 시인은 죽는다면 어찌 찬양할 수 있을 것인지(시 6:6; 30:10; 115:107), 11절에 무덤에서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지,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을 알 수 없음(시 89:5)을 주장하며, 결국 건강 회복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시인은 야웨를 “내 구원의 하나님”(시 62:1; 사 12:2 등)이라고 부르며 밤낮으로 부르짖으며(1절), 구원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즉, 시편 6편이나 38편과는 달리, 이 시는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한 자기 탄원을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가 더욱 길게 확장되어 있다.

둘째, 앞서 시편 38편과 마찬가지로 8절과 18절에서 시인은 인간관계에서의 철저한 고립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편 88편은 인간관계의 고립의 원인을 야웨계로 돌린다. 즉, 8절에 야웨께서 ‘하는 자’ ( $\text{עוֹלָם}$  메우다아이)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어 시인을 가증한 것(레 18:22; 신 14:3; 잠 21:27; 28:9등), 즉, 사람들이 피하는 대상이 되게 하였고, 18절에는 심지어 야웨께서 시인으로부터 ‘사랑하는 자’ ( $\text{אֲהַבְתִּי}$  아헤브)와 ‘친구’ ( $\text{רֵעַ$  레아)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고 주장한다. 즉, 시인은 자신의 병 때문만이 아니라, 병에 걸린 자신을 역겨워하며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모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4절). 시인은 죽음의 공포에 가까운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극단적인 고독감 속에 자신의 죄를 회개 한다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야웨와의 논쟁을 통해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것을 설득하며(10-12절),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야웨의 구원만을 기다리고 있다(1, 13절).

#### 4. 건강 회복 후의 신학적 입장(시 41편)

앞에서 살펴본, 시편 6편, 38편 및 88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41편의 시인 역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라고 인지되어 왔다.<sup>33)</sup> 그러나 바이저에 의하면, 시편 41편은 개인 탄원시라기보다는 개인 감사시에 해당하며, 시인은 건강이 악화된 경험을 한 후, 이제 건강이 회복된 상태이다.<sup>34)</sup> 물론 시의 양식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시의 핵심 부분인 5-10절에 탄원의 내용이 나타나기에, 이 시를 개인 탄원시라고 규정하기도 하지만,<sup>35)</sup> 1-3절과 11-12절을 고려할 경우 감사시의 유형이 더욱 드러난다.<sup>36)</sup> 우선 1-3절은 אֲשֶׁרִי(아쉬레)로 시작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시하는 감사시의 전형에 해당한다(시 43; 40; 65).<sup>37)</sup> 또한 5-11절의 내용 자체는 개인 탄원시에 해당하나, 4절 상반절에 “내가 말하기를”(אֵינִי אֲמַרְתִּי) 아니 아마트)이라는 표현은 감사사에서 시인이 과거 고난 중에 부르짖고 아웨로부터 응답받은 것을 보도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5-11절의 탄원 내용은 감사시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을 회상하며 보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11-12절에는 건강 회복의 응답을 전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sup>38)</sup> 우선 시인이 시편 38편 및 88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때 매우 심한 병으로 인해 아픈 자였음은, 4-10절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시인은 ‘악한 병’(בְּלִיַּל בְּלִיַּל) 벨리아알, 8절)에 걸렸었는데, 이 때 했던 시인의 탄원은 시편 38편의 탄원과 유사하

33) Hermann Gunkel, *룻글*, 121; James L. Mays, *Psalm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237.

34) 아터 바이저, *룻글*, 461. 이 시의 양식을 규정함에 있어서 크라우스(룻글 (1978), 466)와 세이볼드(룻글, 19)는 아픈 자의 시로, 크레이기는 병자를 위한 기도문으로 본다(룻글, 428)

35) 게르스텐베르거, *룻글* (1988), 177.

36) 마지막 14절은 이미 1-41편의 다윗의 시의 종영으로서, 후기 편집임은 인지되어 왔다.

37) Hans J. Kraus, *룻글* (1978, 7), 311.

38) *룻글*, 312.

다. 즉, 시인은 당시 자신의 병을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죄를 회개했으며, 건강 회복을 간구했다(4절). 또한 시편 38편의 경우처럼 철저히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했는데, 당시 경험했던 인간관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신학적으로 회고하고 있다. 첫째, 5-6절에 나타난 바, 사람들은 시인의 투병을 조롱했고, 시인에게 이들을 ‘원수’였다. 둘째, 7-8절에 보면, 병문안 온 사람들은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방문자들이었을 뿐이고, 병문안 와서는 오히려 수군거리며, 시인의 병을 진단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자들이었다고 회상한다. 셋째, 9절에 보면 시인은 ‘가까운 친구’ אִישׁ שְׁלָמִי אֲשֶׁר־בְּטַחְתִּי(이쉬 쉘미 아셰르 바타헤티), 즉,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발꿈치를 들리는 ‘쓴 경험’, 다시 말해 철저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당시의 감정을 표출한다(욥 2:11; 42:7-8). 이렇듯, 시편 41편의 시인도 과거 병상에 있으면서 시편 38편 및 88편의 시인처럼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인간관계의 고립과 단절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 시인이 보여주는 신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2-3절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시인이 질병의 상태에 있을 때, 치유를 위한 제의적 의식이 행해졌고, 치유 후에 다시 감사 제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 때, 시의 도입부인 1-3절은 감사 제의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모인 공동체를 향한 시인의 교훈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 있다.<sup>39)</sup> 이 부분은 질병이 치유된 후, 시편 기자가 얻은 지혜적인 성찰이며, 동시에 감사 제의에 참여한 청중을 향한 교훈의 성격을 띠고 있다.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מַשְׁכִּיל אֶל־דָּל(마쉐길 알 달)에서 ‘가난하다’(דָּל)는 것

39) 윗글 312. 그러나 크레이기는 이 부분을 제사장이 병든 자에게 한 말이라고 본다. 4-10절은 병자의 말이 고, 10절과 11절 사이에 제사장의 신탁이 있고, 11-12절은 병자가 마지막으로 확신을 진술하는 것으로 본다. 세속 치료 행위와 종교적 치료 행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주로 병 치료를 해주었고, 정결 예식을 보면(레 12-15) 제사장들에게 신앙적 권위와 의학적 권위가 동시에 부여되었다. 크레이기, 윗글.

은 시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경제적 혹은 신앙 고백적 측면에서의 가난이 아니라, 아픈 자<sup>40)</sup> 즉, 육체적 질병의 상태를 도움 받을 길 없는 약한 자이다. ‘보살피다’(שָׁקַל) 사갈, 히필 남성 단수 분사)라는 동사는 ‘신중하게 행동하다’라는 의미로서, 환자를 보살피 주고 간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시인과 마찬가지로 만약 청중이 질병에 걸린다면, 어떠한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1절의 “재앙의 날에”(בְּיוֹם רָעָה) 배움 라이)란 바로 5-10절의 상황, 즉, 시인과 같이 건강을 잃었을 때의 정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픈 자를 보살피는 행위는 결국 자신이 아플 때 아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1절에서 “복 있는 자”란 아픈 자를 권고하는 자이다. 즉, ‘권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사갈’(שָׁקַל)은 ‘이해하다, 통찰하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서, 아픈 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복’이라는 것은 1절 하반절에 ‘재앙의 날’에 아웨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고, 이때 ‘재앙’이란 문맥상 검토해 볼 때, 질병에 걸린 상태이며,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것, 즉,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아픈 자를 배려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가 아플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

430.

40) 가난하다는 것(בָּנָה, 달)은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잠 10:15), 외양을 나타내기도 한(삼하 13:4; 창 41:19). 크레이기는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보고, 가난한 자를 권고한다는 것을 가난한 자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본다(윗글, 431)

41) 윗글, 431. 시의 어려운 점은 시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1-3절이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누구의 말인가의 문제이다. 크레이기의 경우 1-3절을 제사장이 아픈 자에게 건네는 말로 보기에, 시 전체를 병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와서 거행한 제의 시에 사용한 기도문으로 규정하며, 이 시의 제의적 성격을 부각시킨다(윗글, 430) 그러나 1-3절은 바이저의 의견대로(아터 바이저, 윗글, 461) 많은 감사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인 아픈 자가 기도 응답 후에 드리는 감사시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감사 제의에 참여한 회

하기도 한다. 즉, 1절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청중을 향한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픈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조롱하는 자를 향한 신학적인 경고로도 볼 수 있다.<sup>42)</sup> 이렇듯, 건강 회복 후 시인이 얻은 지혜는, 아픈 자에 대해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배려를 해 줄 것을 신학적으로 권면한다(겔 34:4; 슥 11:15-17).

둘째, 1절에 언급된 환자를 보살피는 자가 받을 복은 2-3절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우선 2절 상반부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아플 때 아웨로부터 병간호와 더불어 건강 회복의 응답을 받는다. 3절에 보면 아웨께서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붙드시다’라는 동사 ‘**קָפַץ**’ (싸아드)는 ‘지탱하다, 힘을 돋우다, 떠물다’라는 뜻으로서, 결국 아웨께서 간호사가 되어 계속 그의 침상 곁에서 위로와 위안을 주신다는 것이다.<sup>43)</sup> 고쳐준다는 동사 ‘**קָפַץ**’ (하파크)는 ‘뒤집어엎다’라는 의미로서, 아웨의 직접적인 행동을 나타낸다.<sup>44)</sup> 더 나아가 2절 하반부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에서 ‘복’이란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이며, 이는 아픈 자를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일상에서의 형통함, 즉, 장수, 물질적 축복,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시인은 청중으로 하여금 아픈 자를 보살피도록 신학적인 동기 부여를 제공해준다. 이는 질병을 죄와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신학적 기능을 한다. 즉, 아파본 경험이 있는 시인의 신학적 성찰은 질병으로 인한 인간관계 고립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윤리적으로 극복하게끔 해 주고 있다.

---

중들을 향한 교훈적인 성격의 말로서, 청중으로 하여금 시인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지혜적 권면을 하는 것이다.

42) 윗글, 462.

43) 크레이기, 윗글, 432.

44)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의 징후가 변하는 것에 관해 사용되는데, 동사 **קָפַץ**(하파크)는 9회 나온다(레 13:3, 4, 10, 13, 16, 17, 20, 25, 55)

## 5. 맺음말

본 논문의 목적은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와 회복,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의 신학적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비록 오늘의 현대인들이 고도의 의학적 발전과 더불어, 건강과 장수의 열풍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병에 대한 인간의 신학적 반응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시편의 개인 탄원시들 중에서 시편 주석자들 대부분이 ‘아픈 자의 시’라고 인정하는 시편 6: 38; 88; 41편을 살펴보았다. 물론 시편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은유적인 성격과 특정 시의 삶의 자리를 규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아픈 자의 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시인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육체적 질병이라고 여겨지는 시들이, 그 내용에 있어 결코 동일하지 아니하며, 질병의 악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신학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실존적 고난을 가져다주는 질병이란, 정도의 차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고, 신학적 성찰에 있어서도 질병의 악화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탄원시에 해당하는 시편 6: 38; 41; 88편을 비교한 결과, 시인이 탄원하고 있는 질병의 징후 상태에 따라서, 질병의 초기(시 6편), 중기(시 38편), 후기(시 88편) 단계로 구분되었다. 나아가 시편 41편의 경우는 개인 탄원시라기 보다는, 이미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의 신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개인 감사시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이들 네 편의 시들이 보여주는 바, 건강의 악화와 회복에 따른 인간의 탄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의 악화는 한편으로는 환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첫째, 환자와 아웨와의 관계는 질병의 초기부터, 중기, 후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시인은 건강이 악화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후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웨께 버림당했다고 고백하며, 병의 원인을 아웨께로 돌리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원망하며 탄식한다(시 6:3-4; 38:21; 88:14). 다시 말해,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아웨의 분노라고 판단하는 현상은, 질병의 초기(시 6:1)와 중기(시 38:1-3) 그리고 후기(시 88:16-17)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이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즉, 질병의 초기 단계인 시편 6편의 경우,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육체적 질병을 시인을 향한 교육적인 도구(1절)로만 인식하는 반면, 좀 더 건강이 악화된 시편 38편의 경우, 시인은 질병의 원인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한다는 점이다(3-4절). 이에 따라 시편 38편의 시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건강 회복을 요청한다(18절). 즉,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교육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죄의식으로 전환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이 더욱 악화된 후기 단계에 해당하는 시편 88편의 경우를 보면, 시인은 시편 38편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임은 인정하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아웨가 반드시 건강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아웨와의 깊은 신학적 논쟁에 들어감을 볼 수 있다(10-12절). 이로 부터 알 수 있는 바,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학적인 깊은 성찰, 즉, 아웨의 분노와 교육적 도구, 자신의 죄 인정, 회개, 아웨와의 논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실상 건강했을 때 보다 더욱 실존적인 측면에서 강화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건강의 악화가 환자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시인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기 단계를 거쳐 후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고통을 경험한다. 즉, 환자인 시인은 질병의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질병을 아웨

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로 규정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탄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인의 반응은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질병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시편 6편의 경우, 시인은 이러한 주변의 적들을 매우 당당하게 물리치며,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관계의 고립을 이겨낸다는 점이다(8-10절). 그러나 건강이 좀 더 악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시편 38편과 88편의 경우, 시인은 친구와 친척 및 사랑하는 자, 나아가 가족들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며 탄식한다(시 38:11; 88:8, 18). 시편 88편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 단절의 원인 역시, 육체적 질병을 가져다 준 아웨라고 판단하여, 아웨를 원망하고(18절), 그 원망만큼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강하게 요청한다(1, 13절).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인의 철저한 인간관계의 고립은 건강을 회복하고 난 후, 신학적 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 즉, 건강 회복 후에 드리는 개인 감사시에 해당하는 시편 41편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건강을 잃었을 때의 경험을 회고하며(4-13절), 감사 예배에 참여한 청중들을 향해 아픈 자를 배려해 줄 것을 권면한다(1-3절). 다시 말해 환자였던 시인은 아픈 자를 돌보는 사람만이, 결국 자기 자신이 아플 경우, 아웨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는 신학적 성찰을 획득하며, 병자에 대한 윤리적인 배려심을 요청한다. 이렇듯, 아파 본 경험을 한 시편 41편의 시인의 신학적 통찰은 질병과 죄를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 공동체로 하여금 서로 환자를 보살피도록 하는 신학적인 동기를 제공해 주며, 아픈 자를 배려하는 윤리적인 사고의 전환과 생활 방식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 6. 참고문헌

김이곤, 「시편 시문학의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06).

- 김정우, 「시편 II」(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김흥관, 「성서(聖書)에 나타난 疾病과 治癒」(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1999).
- 정정숙, “질병, 징계인가, 연단인가”, 「월간목회」 220호 (1994년 12월).
- 홍성혁, “구약성서의 질병이해: 질병의 원인”, 「구약논단」 13권 1호 (2006, 4월).
- 피터 크레이기, 「시편 19」(손석태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원제 Craigie, Peter C. Psalms 1-50 (WBC 19; Texas: Word books pub., 1987).
- 아터 바이저, 「시편 I」(김이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04, 원제 Weiser, Artur, (*Th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아 아카데미아, 2004), 원제 Kraus, Hans J, *Theologie der Psalmen* (Berlin: Neukirchen Verlag, 1989).
- Avalos, Hector, *Illness and health Care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Role of the Temple in Greece, Mesopotamia, and Israel* (Atlanta: Scholars Press, 1995).
- Featherstone, Mike, *Consumer Culture and Postmodernism* (London: Sage, 1991).
- Gerstenberger, Erhard S., *Psalms: Part I: with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 Gunkel, Herman,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Hossfeld, Frank L.,/Zenger, Erich, *Psalmen 1-50* (NEB 29; Freiburg:

- Herder, 1993).
- Kraus, Hans J., *Psalmen 1: Psalmen 1-59* (BKAT X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_\_\_\_\_, *Psalmen II: Psalmen 60-150* (BKAT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Mays, James L., *Psalm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 Mowinckel, Sigmund, *Psalmen Studien I* (Amsterdam: P. Schippers, 1966).
- \_\_\_\_\_,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1992).
- Seybold, Klaus, *Das Gebet des Kranken im Alten Testament.. Untersuchungen zur Bestimmung und Zuordnung der Krankheits- und Heilungspsalmen* (BWANT 99; Stuttgart: Kohlhammer, 1973).
- Turner, Bryan S., *Regulating Bodies: Essays in Medical Sociology* (London: Routledge, 1992).
- Westermann, Claus,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Atlanta, Ga.: J. Knox Press, 1981).

## 검색어

아픈 자의 시

질병

건강

시편 6편

시편 38편

시편 41편

시편 88편

## A Study on the Lamentation in the aggra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Healthy

**Tae-Kyung Kim, Dr. Theol.**

Lecturer at Department of theolog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ickness on the individual lamentation. For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Psalm of sickness 6; 38; 41; 88, and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ckness and the theological response to it.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will show the theological difference among the Psalms of sickness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it will present the theological reflection for the ethical

[www.kci.go.kr](http://www.kci.go.kr)

society, in which the people care the sick person.

Firstly, the sickness causes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ick person and his God. In the case of the first stage of the sickness Psalm 6, the psalmist recognizes the cause of his dieses as God's anger. However, he accepts it not as God's judgement, but as God's educational instrument for him. In the case of the middle stage of the sickness Psalm 38, the psalmist recognizes his sickness as relating to his own guilt und repents it. In the case of the late stage of the sickness Psalm 88, the psalmist accepts his dieses as his own guilt. However, he does not repent his guilt. Rather, through the discussion with God he attempts to make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restoration of his healthy.

Secondly, the sickness causes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ck person and the others. In the case of Psalm 6, the psalmist is against his enemy on the base of the confidence for God's salvation, by which God will restore his healthy. However, in the case of the Psalm 38 and 88, the psalmists experience the social isolation. In the case of the Psalm 41, the Psalm of thanksgiving, the psalmist insists the God's blessing to the person, who cares the sick person. In this way he pursues the ethical community, in which the people cares the sick persons.

## Key words

Psalm of sickness

Diseases

Healthy

Psalm 6

Psalm 38

Psalm 41

Psalm 88

- 투고일: 2012년 7월 1일
- 심사일: 2012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7월 25일

[www.kci.go.kr](http://www.kci.go.kr)